

슬픔 중에서도 주님을 확신한 예레미야의 눈물 -복음으로 여는 예레미야애가- 예레미야애가 3:22-24, 로마서 8:38-39

정윤돈 목사님

* **애3:22-24** 여호와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므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 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와 나의 기업이니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 **롬8:38-39**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주와 천하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안에 살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 때 가장 행복하고 가치 있게 살아가다가,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는 새 예루살렘의 약속까지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어리석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신앙하며 불순종하다가,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서 오만 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 주원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이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자격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메시지 성취의 주역이 될 뿐만 아니라,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까지 영적 성장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예배와 의도와 찬양과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게 하시며, 영육 간의 절대불가한 부분까지도 치유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모든 응답과 축복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그리고 나의 업과 특별히 후대를 위하여 올인하며 생명 걸어야 할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난 한 주간도 여러 가지로 고통하고 아파하며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까? 오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문제와 어려움을 주시는 하나님의 절대계획과 절대미션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말씀 중에서 나에게 주시는 언약의 성취될 레마를 발견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하여 도전할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으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서론: 예레미야의 고난과 하나님의 시간표

1. 영적 기준점이 되는 예레미야의 역사 오늘날은 예레미야애가서를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한다. 성경 역사를 면밀히 살펴보면 중요한 영적인 기준점이 되는 사건들이 있다. 창조와 타락, 노아의 방주, 아브라함의 등장, 그리고 이스라엘의 광야생활 같은 것들이다. 보통 예레미야서는 이러한 핵심적인 역사적 기준점으로 잘 인식되지 않는 경향이 있지만, 이스라엘 역사를 목상할수록 예레미야라는 인물과 그 시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너무나 중요하다. 예레미야를 목상해보면 그는 인생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어려움을 다 겪은 사람이다. 그의 40년 사역기간 중 좋은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었다. 무언가 좋은 것이 생기려고 하면 하나님이 다 가져가시는 것 같았다. 그의 모습은 마치 예수님의 고통을 그대로 반영하는 듯하여 보는 이로 하여금 안타까움을 자아낸다. 우리네 인생은 살다보면 하나님이 좋은 것도 주시고 가시적인 응답도 주시지 않는가. 그런데 예레미야에게는 그런 것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새롭게 느낀 것이 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성경 전체 인물 중에서 어쩌면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이다. 욥도 극심한 고통을 당했지만 결국 나중에는 갑절의 복복을 받았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당대에 눈에 보이는 축복을 거의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감사하며 믿음으로 소망을 붙잡았다. 그의 기도와 메시지는 70년 후, 성전회복과 국가회복의 소망이 되었고, 그 영향력 아래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 같은 절충한 랍넛들이 일어났다. 그는 죽은 후에 비로소 자신의 기도가 모두 응답되는 것을 보는 '시공간을 초월한 응답'의 주인공이었다.

2. 하나님의 시간표와 조급함의 경계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한다. 예레미야는 피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크고 놀라운 비밀'은 "내가 살아있을 때는 응답하지 않고 네가 죽은 다음에 응답하겠다"는 것이었음에도 모른다.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서는 상당히 답답하고 짜증 날 일이지만,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다.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 년 같고 천 년이 하루와 같다. 어떤 목사님이 부흥이 안 된다고 고민하시기에 "천 년의 응답을 받으시라"고 권면한 적이 있다. 이는 당장 내 눈앞에 결과가 없어도 실망하지 말라는 뜻이다. 이스라엘 민족을 보라. 수천 년이 지났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세계적 민족으로, 남은 자로, 랍넛으로 세우셨다. 하나님의 응답이 늦는 것 같지만 결코 늦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의 불신앙으로 인해 이방인인 우리에게까지 복음의 은혜가 미치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

가. 그러므로 성도는 조급해서는 안 된다. 시간표를 앞당기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믿는 것이다. 불신앙은 시간표를 늦춘다. 이스라엘 민족이 40일이면 갈 길을 불신앙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지 않았는가. 우리가 겪는 문제 앞에서 짜증을 내고 인상을 쓰는 그 하루가 우리 후대들에게는 수백 년의 고통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부모와 조부모의 믿음은 후대에게 복의 근원이 되거나 저주의 근원이 될 수 있는 막중한 책임이 있다. 1분, 1초도 놓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사춘기라는 핑계로 예배에 실패하고 불신앙에 빠지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300%의 응답 중 3%도 누리지 못하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붙잡고 나아갈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응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천국보다 더한 축복이 될 수 있지만, 반대로 응답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은 지옥보다 더 고통스러울 수 있다. 그러므로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반드시 이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한다. 예레미야의 삶은 결코 모든 응답이 즉각적으로 나타나거나 편안한 삶이 아니었다. 예레미야는 그 어떤 극한의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았다. 그는 고난의 현장 한복판에서 주님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을 깊이 체험하고 깨달았다. 이러한 확신이 있었기에 그는 역사에 영원히 남는 믿음의 이정표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예레미야가 붙잡았던 그 언약을 회복하고 믿음의 길을 걷기를 간절히 축원한다.

3. 세상 물정을 아는 지혜와 영적 망대 예레미야 선지자 이전의 왕이었던 요시아 왕을 보라. 그는 성전을 수리하고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선한 왕이었으나, 애굽 왕 바로 느고와의 전쟁에서 허망하게 전사하고 말았다. 말씀을 회복했는데 왜 죽어야 했을까? 하는 의문이 들 수 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바로 느고는 요시아에게 길을 비켜달라고 정중히 요청하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전했다고. 요시아 왕은 신앙은 좋았을지 모르나 세상 돌아가는 물정을 너무 몰랐다. 강대국 사이에서 지혜롭게 대처해야 할 때 고집을 부리다가 화를 자초한 것이다. 예수 믿는 것이 곧 고집불통이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복음의 사람은 더 여유가 있고, 배려할 줄 알며,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할 줄 안다. 힘이 약한 나라라면 국제 정세를 살펴봐 지혜롭게 처신해야 하듯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다. 길거리에 서 작은 차가 큰 차 앞에서 잘못을 했다고 치자. 큰 차 주인이 화가 나서 난리를 쳐도 작은 차 주인이 격투기선수처럼 힘이 세다면 지혜로운 사람은 그를 피해 가는 법이다. 자신의 혈기를 못 이겨서 사고를 내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다.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가 내 안에 없기 때문에 욕하는 것이다. 우리의 기준은 나의 성격이나 체질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절대망대, 절대기준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란다. 착한 것만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다. 신앙생활 없이 착하기만 한 사람은 나중에 이상한 친구를 만나면 금세 마귀에게 속아 눈동자가 도끼처럼 변하기도 한다. 하지만 말씀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못된 성질도 복음 안에서 갱신할 수 있다. 우리 교회 이전 교역자처럼 강단메시지를 붙잡고 자신을 바꾸어 나가는 것이 진짜 응답받는 길이다.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절대망대이자 기준이 되기를 축원한다.

4.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성실하심(애3:22-24)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멸망한 비참한 현장 속에서도 아침마다 새롭게 주님을 바라보았다. 예레미야애가 3장 23절 말씀처럼, 모든 고통과 환경이 원망과 불평, 분노와 짜증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나 그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고백하였다. 당시 상황을 보면 요시아 왕은 허망하게 전사하였다고 나라는 바벨렸으며,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두 눈이 뿔뿔히 뜯힌 채 자녀들의 죽음을 목격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갔다. 언약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처참한 일이 일어나는지 원망할 법한 환경이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매일 저녁 기도하고 아침을 맞이할 때마다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새롭게 체험하였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반드시 회복 시킬지 것이며, 그 응답은 이미 '완료'로 확정되어 있음을 믿었다.

5. 하나님의 자녀된 영적 자부심과 자존심(롬8:38-39) 예레미야의 마음속에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확고한 자부심과 자긍심, 그리고 영적 자존심이 있었다.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문제 앞에서 짜증을 내거나 인상을 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기리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현실은 매를 맞고, 용당이에 빠지며, 주변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예레미야는 그 밀바닥에서 확실한 믿음을 붙잡았다. 돈이 없거나 건강을 잃거나 가난할지라도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고백할 바란다. 이러한 예레미야의 신앙은 사도 바울의 고백과 궤를 같이 한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말씀처럼,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확신을 가졌던 것이다. 이 고백이 성도의 당연한 고백이 될 때 흑암을 쫓고 이 땅에서도 참된 응답을 누릴 수 있다.

6. 그루터기를 통한 회복과 절대망대의 사명 이스라엘의 회복은 인간의 수치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성전은 70년 만에 회복되었으나, 포로로 끌려갔던 이들이 완전히 돌아오기까지는 다니엘과 그 후대들을 거쳐 약 150년의 세월이 흘렀다. 비록 초라한 성전으로 시작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안에 '크고 은밀한 비밀'을 담아두셨다. 예레미야의 눈물의 기도는 결국 남은 자(랍넛)를 통해 응답되었다.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베임을 당하여 다 죽은 것 같아도 그 뿌리가 남아있는 '그루터기'에서 새 가지가 나오고 열매를 맺는 것과 같다. 세상에 믿음이 없고 교회가 무너지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가 있다면 반드시 다시 모든 것을 정복하게 된다. 성도는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와 기쁨을 회복하여 응답의 시간표를 앞당겨야 한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절대망대'를 지키는 파수꾼의 사명이다. 다윗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천 개의 파수방대를 세웠던 것처럼, 우리도 삶의 모든 현장에서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영적 망대를 세워야 한다.

들어가는 말씀 : 예레미야애가서의 의미와 신앙고백

예레미야 애가서의 히브리어성경 제목은 원어로 '슬프다'이다. 이 책은 예루살

램 성이 완전히 파괴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후에 기록한 슬픔의 노래이며, 그 안에는 고통스럽고 슬펐던 내용들이 가득 담겨 있다. 단순히 슬픈 감정이나 하나님을 향한 원망만을 기록한 것이 아니다. 예레미야는 도저히 신앙을 지키기 힘든 극한의 고난 속에서도 그 밑바닥에 흐르는 깊은 신앙의 고백과 믿음을 기록하였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평생 자기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다. 예레미야 43장 6절에서 7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는 포로로 끌려가지는 않았으나 이스라엘 사령관 느부사라단에 의해 강제로 애굽으로 끌려가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하였다. 인생의 마지막까지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고통이 커질수록 그의 믿음은 더욱 깊어졌다. 그는 우리에게 '믿음의 절대량'대이자 '영적 이점표'가 되는 모델이 되었다. 성도들은 가문과 현장에서 이러한 예레미야의 믿음의 모델을 따라야 한다.

1. 이스라엘과 예레미야가 당한 실질적인 어려움

(1) 이스라엘 백성이 당한 고난

1) 유대 민족이 당한 고난과 수치(애1:1) 예레미야애가 1장 1절은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괴루 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라고 탄식한다. 과거 다윗과 솔로몬시대는 전 세계에서 지혜를 얻으러 오고 보물을 바칠 만큼 화려했던 예루살렘이 전쟁으로 모든 것을 빼앗기고 적막한 폐허가 되었다. 공주와 같았던 존귀한 백성들이 이방 나라에 끌려가 강제노역을 하는 비참한 신세가 된 것을 보며 예레미야는 찢어지는 아픔을 느꼈다. 보통 슬프면 눈물을 흘리지만, 간절함이 극에 달하면 온몸에 땀이 날 정도로 애를 쓰게 된다. 땀방울이 땀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썩어질 세상의 금메달이 아니라 영원히 남는 복음과 전도를 위해 이러한 간절함과 '한(恨)'이 있어야 한다. 나라와 민족,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피땀을 흘리는 사랑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한다.

2) 예배의 중단과 성전의 파괴(애1:4, 1:10) 예레미야애가 1장 4절에 따르면, 시온의 도료들은 슬퍼하고 절기를 지키려 나아오는 사람이 없게 되었다. 모든 성문은 적막하고 제사장들은 탄식하며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영적 기근의 상태에 빠진 것이다. 또한 1장 10절 말씀처럼 대적이 손을 펴서 예루살렘의 모든 보물을 빼앗아갔다. 이는 이스라엘이 폐제사와 언약의 절기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닥친 재앙이었다.

3) 굶주림으로 인한 처참한 비극(애2:20) 가장 참혹한 상황은 2장 20절에 기록되어 있다.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자 성 안은 극심한 기근에 시달렸고, 배고픔을 이기지 못한 여인들이 자신이 낳은 아이를 잡아먹는 상할 수 없는 비극이 일어났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자 하나님의 백성이 이러한 처참한 지경에 이른 것은 영적인 축복을 다 놓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4) 결론적 교훈 : 영적 소망과 기쁨의 회복 성도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과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한다. 예레미야는 아침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새로운 은혜를 구했다. 우리 역시 저녁에는 하루를 돌아보며 하나님이 주신 만민과 응답을 찾아 내어 인생의 작품을 만들어야 한다. 비록 지금의 상황이 이스라엘의 멸망처럼 압박해 보일지라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가 있다면 반드시 모든 것을 정복하고 회복하게 된다. 세상의 원망과 짜증을 버리고 항상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앞당기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

(2) 예레미야 선지자 개인이 겪은 고통

1) 목회자의 고통과 진정한 집중의 의미 예레미야 선지자 본인이 당한 고통은 실질적으로 매우 컸다. 목회자에게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했음에도 성도들이 그 말씀을 붙잡지 않거나 깨닫지 못할 때이다. 진정한 집중이란 많은 메시지 중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핵심주제를 붙잡는 것이다. 이는 학교공부나 직장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뒷사람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엉뚱한 일을 하면 결코 성공할 수 없다. 부모님이나 선생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의 시간표가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붙잡는 것이 응답받는 축복의 길이다. 예레미야는 고난이 깊어질수록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았고 '천 년의 응답'을 바라보며 후대를 향한 메시지를 남겼다.

2) 포로생활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세계복음화 계획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에 갇혀 말씀을 전했지만,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없었다. 그는 요시아 왕이 회복한 말씀을 바탕으로 어린 나이에 선지자로 부름받아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와 같은 제자들을 양육하였다. 그러나 기원전 605년 갈그미스전투 이후, 그가 정성껏 키운 제자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사건이 발생했다. 예레미야의 입장에서 나라를 회복할 인재들을 잃어버린 절망적인 상황이었으나,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다. 하나님은 세계 최고의 나라인 바벨론을 복음화하기 위해 그들을 국무총리로 세우고자 미리 보내신 것이다. 이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뒤에는 더 큰 세계복음화의 뜻이 있음을 믿어야 한다.

3) 예레미야가 겪은 육체적 정신적 수난 예레미야 3장 53절에서 55절 말씀처럼 대적들은 예레미야의 생명을 끊으려 웅덩이에 던지고 그 위에 돌을 던졌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이유로 핍박받는 극한의 상황이었다. 잠인 12장 1절에는 "혼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고 기록되어 있다. 개인적인 예화로, 나의 아버님은 목소리가 크고 엄격하시며 사춘기시절 상처가 될 만한 말씀을 하실 때가 많았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아버님의 훈계를 수용하였고, 이를 통해 영적으로 단련될 수 있었다. 교단 내에서 거칠게 행동하는 이들을 만날 때도 위축되지 않는 이유는 이미 이러한 환경 속에서 단련되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환경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절대적인 기회이다. 여러분이 어떠한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더라도 주님의 절대주권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린다. 또한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히기 전 모진 매질과 고문을 당했다. 당시의 감옥은 빛도 없고 습한 지하구덩이와 같았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자신을 치시는 것 같은 고통 속에서 살과 가죽이 쇠하고 뼈가 꺾이는 수치를 당

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자녀를 두지 말라고 명령하셨다(렘16:2).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오직 사명에만 집중하게 하였고, 예레미야는 굶주림으로 인해 부모가 자녀를 잡아먹는 참혹한 현장까지 목격하며 이스라엘의 재앙을 온몸으로 겪어야 했다.

2. 고난 속에서도 빛나는 예레미야의 믿음의 고백

예레미야 선지자는 모든 것을 잃고 고통당하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아주 귀한 믿음의 고백들을 남겼다. 이 고백들은 우리가 어떤 처지에서도 붙잡아야 할 영적인 대원칙이다.

(1) 무궁한 인자와 아침마다 새로운 성실하심(애3:22-23) 예레미야는 애가 3장 22절에서 "여호와와 인자와 공활이 무궁하시므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라고 고백했다.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멸망하는 비참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절대로 이 나라와 민족을 영원히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라는 절대적인 계획을 믿은 것이다. 이어 23절에서는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라고 노래한다. 현실적으로는 하나님이 성실하게 나를 괴롭히시는 것처럼 느껴질 만큼 고난이 계속되지만, 예레미야는 그 성실하심이 결국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동력이 될 것임을 믿었다. 이는 미래를 바라보는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다.

(2) 여호와와 나의 기업이사라(애3:24) 예레미야는 3장 24절에서 "여호와와 나의 기업이사라"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고 고백한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고통뿐만인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 자체가 자신의 유일한 소망이자 자신임을 인정한 것이다. 나는 최근 우리 교회를 통해 100억, 1,000억짜리 부자 1,000명이 세워지게 해달라는 기도가 나왔다. 과거 고아원에 있을 때 공부가 부족했던 100명의 아이를 모두 대학에 보내고 자립시킨 경향이 있다. 지금 서울의 성도들을 보니 모두가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성도들은 자신의 분야에서 죽도록 충성하여 경제적인 축복을 받아야 한다.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237나라와 세계를 살리기 위해 전 세계를 자신의 기업으로 만드는 주역이 되어야 한다. "여호와와 나의 기업이사라"는 고백을 붙잡고, 사람을 원망하거나 다투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모든 응답의 문을 여시길 바란다.

(3) 자발적이고 성실한 '남은 자의 태도' 하나님의 자녀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사람은 희망이 없다. 스스로 먼저 찾아서 하는 자발적인 중심이 필요하다. 군대에서는 한 번 지시하면 아홉 번을 확인해야 겨우 일이 돌아간다는 말이 있다. 하지만 그런 수동적인 태도로는 세계적인 기업을 일구거나 서밋의 응답을 받을 수 없다. 하나님을 말하면 열을 알아듣고 스스로 움직여야 한다. 지방에 있을 때 한 햄릿트가 겨울방학에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사장님이 여름에도 꼭 다시 와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한다. 이는 그 친구가 성실하게 현장을 지켰다는 증거다. 어디를 가든 사장이 부를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가게를 가보면 주인이 아닌데도 주인처럼 일하는 직원이 있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성공한다. 반면 시간만 때우고 퇴근할 공리만 하며 남 탓을 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다. 우리는 꾸지람을 듣기 전에 먼저 헌신하며, 현장에서 사장보다 더 사장 같은 마인드로 일하는 파수꾼이 되어야 한다.

(4) 선행한 여호와를 기다리는 소망(애3:25, 31, 32) 3장 25절은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를 선행시도다"라고 말씀한다. 주님의 축복을 믿으며 오래 참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흠어진 자, 파수꾼, 정탐꾼, 기를 들고 대로를 만드는 자로서 길을 만드는 이정표적 인물들은 바로 이 기다림의 비밀을 아는 자들이다. 또한 31절과 32절에서 주님은 우리를 영원토록 버리지 않으시며, 잠시 근심을 주시더라도 풍부한 인자하심으로 공활히 여기실 것을 약속하셨다. 이스라엘의 무너진 성전이 새 예루살렘의 소망으로 연결되었듯, 지금의 고난은 형언할 수 없는 축복으로 회복될 과정일 뿐이다. 여러분도 어떤 어려움 속에 있다 하더라도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그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차기를 축원드린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 근심과 염려, 걱정거리를 주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그 너머에는 반드시 풍요와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실 계획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는 이미 '다 이루어졌다'. 지금 겪는 모든 환난은 지나가는 과정일 뿐이며, 그 뒤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과 응답이 반드시 예비되어 있음을 확신해야 한다.

(5) 영원한 보좌와 회복의 간구 (애5:19, 21) 예레미야는 마지막 5장 19절에서 영원히 계시는 주님의 보좌를 바라본다. 세상의 왕좌는 무너져도 하나님의 보좌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21절에서 "우리를 주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나이다"라고 간구한다. 이는 회개와 전도, 심지어 고난 중에 감사하는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가능함을 고백하는 것이다. 성도와 후대들은 이 은혜를 덧입어 3천 제자, 40만 제자, 1천만 제자, 237나라와 5,000종족을 살리는 주역이 되어야 한다. 고난은 지나가는 과정일 뿐, 우리의 결론은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승리이다.

결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믿고 승리하는 모든 성도와 후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한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언약의 말씀 예레미야애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을 저희에게 보여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이 없고 연약한 저희에게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그 깊은 은혜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모든 성도와 후대들이 쓰임받으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때를 따라 보내는 모든 것들을 넘치도록 풍요롭게 부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으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